

호칭어를 통한 언어문화 교육

박상천
(부카레스트대학교)

1. 시작하는 말

진정한 의미의 언어 교육이란 단편적인 한 문장만을 사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얻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언어 사용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나아가서는 그들과의 담화 상황에서 맥락을 통한 의미 파악까지도 가능케 함을 말하는 것이다.¹

즉, 언어학습을 통한 의사소통이란 단순한 일회성 정보 교환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 교류와 문맥에 따른 비언어적 소통까지도 포함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런 언어학습을 통한 의사소통을 할 때 대부분은 말을 듣는 상대방을 부른 후 이야기를 시작한다. 즉,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케 하여 대화에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² 내가 다음 발화를 이어갈 시간적 간격과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청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는 발화되는 조건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언어문화의 규범에 맞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어법이 발달한 한국어의 특성상 뒤의 발화 내용을 이끄는 처음의 호칭어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다른 언어에 비해 높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박상천(2004:1)에서는 호칭 형태의 선택에 따라 문장 종결어미의 존대 정도가 달라지는 한국어의 특성상 호칭의 습득

¹ 언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² 청자 지정의 기능

은 곧 한국 언어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호칭어를 통한 언어문화 교육은 문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어문화 자체를 이해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며,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 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8가지 호칭 교육 방향을 참고하여 호칭의 유형별 언어문화 교육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편의상 호칭의 유형과 용어 등은 앞선 연구를 따른다.³

2. 본말

2.1 직접호칭

2.1.1 명사형

2.1.1.1 친족명사형⁴

친족명사형 호칭은 대부분 친족들 간에 쓰던 호칭으로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 살던 시기에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가족 사회문화가 해체되어 감에 따라 이 호칭의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들 중 몇몇 호칭이 현재에는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사용 범위를 넓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관계에서 시작된 호칭이므로 호칭 자체에 친밀감이 들어 있고, 주로 성과 나이 변수를 고려하여 사용하게 되는 호칭이다.

이 호칭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선택, 사용된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친족명사형 호칭은 때로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어 부정적인 반응을

³ 박상천(2004), 한국어 호칭 교육 방안 연구

⁴ 유형 예시: 할아버지(님), 할머니(님), 아저씨, 아주머니(아줌마), 아가씨, 언니, 형(님), 오빠, 누나, 형수(님) 등

일으킬 수 있는 ‘단힌 호칭’⁵이므로 유의시켜야 할 것이다.

가.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

주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사전(事前)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게 되는데, 현재 한국의 언어문화에서는 이 말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뚜렷한 연구의 결과물로 나온 바는 없으나, 언중들이 이들 호칭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처럼 ‘아줌마’⁶ 라는 호칭을 사용할 경우 부르는 사람의 심적 태도가 전달되어, 일반적으로 그에 따르는 청자의 반응이 다소 불쾌하거나 소극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①-1.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 저도 몰라요!

①-2.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에 비해 ‘아저씨’, ‘아가씨’는 ‘아줌마’ 호칭보다 다소 덜 불쾌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시 단힌 호칭의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을 자제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아가씨’ 호칭은 현재 가족 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보통 결혼 전의 여자를 부르는 의미이나 현대에는 그 뜻이 변질되어 사용된 결과 부정적 의미 또한 갖는 호칭임을 언

⁵ 박상천(2004:3) 상대방을 비존중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고, 소극적, 부정적 상태로 만들어 대화의 단절과 정보 전달에 방해를 일으키는 부적절한 유형의 호칭. 반대말은 열린 호칭.

⁶ ‘아줌마’는, 결혼한 후 시대에 뒤떨어지고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으며,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한 이미지를 주는 말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이(1998)는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봄.

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말을 대신할 수 있는 호칭, 예컨대 ‘선생님, 사장님, 여기요, 저기요’ 등으로 교체하여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언니

이 호칭은 한 가족 안에서 자매들 간에 쓰이는 호칭이나 근래 들어 사용 범위를 넓힌 결과 호칭의 사용 조건이 약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호칭은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이나, 현재는 나이 구분 상관없이 화자보다 어린 청자에게도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미용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남자 미용사가 여자 손님에게도 사용하는 등, 사용 경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지는 대표적인 호칭이다.⁷

따라서 ‘언니’ 호칭을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늘 맥락이 감소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므로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한국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극단적인 예이지만 학습자가 어떤 남자 화자에게서 이 ‘언니’ 호칭을 듣고 그 남자를 오해하고, 낮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칭어 교육이 한국의 사회,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하나

⁷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 힘’ 이 커진 결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호칭을 친밀도가 높은 유형에서 찾고, 나의 위치를 아래에 두어 그 ‘힘’ 을 인정하고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라 여겨진다.

의 이유일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친족명사형 호칭들은 대부분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듣게 되는 표현 및 이해의 범주에 드는 호칭이므로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⁸ 상황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2.1.1.2 일반명사형⁹

일반명사의 형태를 띠는 유형은 대부분 직업이나(선생, 사장, 학생 등)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선배, 손님, 고객 등)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처음 만난 상대방을 부르는 적당한 말이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들 호칭은 발화되었을 때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이들 호칭은 위에서 언급한 친족명사형 호칭이 주는 부정적 의미를 대신하기 위해서 선택,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 등의 호칭은 청자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일반명사형 호칭을 대신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

②-1. 아저씨(아줌마, 아가씨), 지금 몇 시예요?

②-2. 선생님(학생), 지금 몇 시예요?

<은행, 우체국, 기차 등에서 직원이 하는 말>

③-1. 아저씨(아줌마, 아가씨), 앞으로 오세요.

⁸ 조현용(2003:358)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⁹ 유형 예시 :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선배(님), 손님, 학생, 고객님 등

③-2. 손님(고객님), 앞으로 오세요.

현재 한국의 언어문화에서는 위에서 예를 든 ②-1, ③-1의 경우를 어색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위의 상황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족명사형으로 부르고, 불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족명사형 호칭이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언중들 간에 이를 대신하는 일반명사형이 좀 더 격식성 있고 품위 있어 보인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일반명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생님, 사장님’과 같은 호칭은 실제 청자가 사전적 의미의 선생님, 사장님이 아니어도 화자의 격식성 있는 태도가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손님, 고객님’과 같은 종류의 호칭은 은행 등에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현재의 한국 언어문화는 가급적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형태라고 판단되는 호칭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호칭이 주는 사회적 지위에 민감하고 격식과 체면을 따지는 한국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변화일 것이다.¹⁰

이런 변화의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변화와 그에 따르는 호칭은 분명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재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지만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본다.

2.1.2 결합형

¹⁰ 입신양명의 한국적 문화가 영향을 미친 일종의 ‘호칭 거품’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 : 아저씨→선생님, 사장님/ 아줌마→사모님)

2.1.2.1 직위결합형¹¹

이 유형은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부르는 것으로 주로 조직 내에서 사용되며, 호칭 선택 변수가 비교적 간단하다. 화자의 나이, 직위가 청자보다 적고, 낮을 때는 姓을 제외한 ‘직위+님’의 형태로, 화자의 나이, 직위가 청자보다 많고, 높을 때는 성을 포함한 ‘성+직위’의 형태로 사용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조건 밖의 상황인데, 이 때는 나이와 직위 등 비교적 복잡한 변수에 따라 압존법이 나타나는 등 형태가 달라진다.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교육 상황에서 다루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호칭법에서는 ‘직위+님’의 형태가 가장 격식 있는 언어 예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형태는 학습자의 사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영어에서 사용되는 형태인 ‘직위’ 단독 형태의 호칭이 한국어 문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장님을 부를 때>

④-1. President, would you give me a speech?

④-2. 사장,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의 예에서 ④-1. ‘President’ 는 영어에서 격식 있는 호칭으로 통용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한 ④-2.의 ‘사장’ 호칭은 한국어 어법에 많지 않는 잘못된 호칭으로 뒤에 나오는 문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에 접

¹¹ 유형 예시 : 사장님, 총장님, 김 부장님, 이 과장님 등

미사 ‘님’을 붙여서 호칭을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내용은 이 유형을 학습한 후 ‘학생님, 의사님, 여자님’등과 같이 과대일반화(over-generalization)¹²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2.1.2.2 이름결합형¹³

이 호칭은 대부분 상하관계가 미약하거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청자를 일정 부분 존대해 주는 의미가 들어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름을, 여러 관계가 얽힌 호칭 대신 그 자체로 불러 줌으로써 청자의 독립적인 정체성도 일깨워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화 당사자들 간에 사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위의 직위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이름’ 단독의 호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¹⁴ 姓 혹은 이름에 ‘님, 씨, 군, 양, -아/야’ 등이 붙어 사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이 유형의 호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총 8가지 종류 중, 한두 가지 특정 형태의 호칭만 쓰이고 있어 학습자들이 그 밖의 형태를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姓+이름+씨’, ‘이름+씨’의 형태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나머지 종류를 학습하기 힘들며, 이로 인한 호칭의 오용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처럼 이 방법의 호칭은 화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⑤의 경우처럼

¹² Rod Ellis(2001:2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¹³ 유형 예시 : 김철수 님, 김철수 씨, 철수 씨, 김 형, 김 군, 이미영 양, 이 양 등

¹⁴ ‘성+이름’ 단독 형태의 호칭은 때로 청자를 긴장시키는 수단이 되는 강조 용법으로 사용된다.

예) 김영철, 너 왜 숙제를 안했지?

럼 학습자가 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어법상의 결례를 범할 수 있다.

<화자보다 나이 많은 청자를 부르며 말할 때>

⑤ 강기영 씨(기영 씨), 안녕히 가세요.

위의 예문에서는 청자의 나이와 직업(직위) 등의 변수에 따라 적절한 직위결합형을 사용하거나 호칭 자체를 발화하지 않는 형태가 어법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호칭법 중, ‘姓+이름+씨’, ‘이름+씨’, ‘이름+아/야’의 형태는 화자와 나이가 같거나 어린 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것을 가르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이름+님’의 형태는 학습자가 사용할 가능성은 낮으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류이므로 이해 호칭으로 분류하여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머지 ‘姓+이름+군/양’, ‘姓+군/양’, ‘姓+씨’, ‘姓+형’ 과 같은 용법은 닫힌 호칭에 가깝고, 현재 한국에서도 드물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 내용에는 배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이들 유형 중 학습자의 문화권과는 반대로 부적절한 호칭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¹⁵

2.1.3 어린이 매개형¹⁶

이 호칭법은 자녀의 이름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부르는 방법으로 한국인의 의식과 전통적으로 내려 온 언어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름결합형의 호칭법이 현대에 와서 생긴

¹⁵ 영어의 경우 'Mr.,Miss'가 이름 앞에 붙어 경칭이 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미스터 박, 미스 김’ 등과 같은 용법은 그다지 좋지 못한 호칭법이다. 박남일(2006)에서 말하는 영어를 섞어 쓰는 풍조로 인한 모방의 일종.

¹⁶ 유형 예시 : 철수 엄마(어머니)/아빠(아버지, 아버님), 영숙이 엄마(어머니)/아빠(아버지, 아버님)

호칭법이라면 이 경우는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예전부터 결혼한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렸던 언어 관습과도 관련 있는 이 호칭은 엄밀히 따져 맥락 안에 제 3자 즉, 자녀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녀의 존재를 항상 생각하고 담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종류의 호칭이 생긴 이유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생긴 문화 때문일 것이다.¹⁷ 즉,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결속력을 다지려 했던 한국의 문화가 호칭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 유형은 비공식적 호칭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화자보다 나이 많은 청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한국에서도 사적인 상황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호칭임을 학습자들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또 학습자가 직접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한국의 언어문화를 교육할 때 언급하는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2.2 간접호칭

2.2.1 처소형¹⁸

직접 호칭과는 달리 의사소통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않고 발화하는 형태 중 하나로, 처소형에서는 다른 호칭 선택 변수 중

¹⁷ 박영순(1980)은 사회적 지위나 가족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함.

¹⁸ 유형 예시 : 여기요, 저기요

말하는 이의 장소나 상황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바꿔 말하면 호칭 발화 조건 중에 참여자 변수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형태가 사용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호칭을 선택할 때 부딪치는 복잡한 여러 변수들에서 벗어나 단순하면서 무난한 말을 호칭어로 선택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공공장소나 음식점,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호칭으로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친족명사형 호칭을 대신해서 쓰인다. 아래 예문을 보면 그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다.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⑥-1. 아줌마/아가씨,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⑥-2. 여기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기술향 바와 같이 ⑥-1.의 경우 실제 한국어 사용 상황에서는 원래 뜻과 무관하게 부정적 의미를 전달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할 호칭이다. 반면 ⑥-2.의 경우는 그런 의미 전달 가능성 없이 상대방을 나에게 집중시킨다는 호칭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급적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단히게 만드는 호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열리게 하는 호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래의 예는 또 다른 상황으로 같은 처소형 호칭의 사용 차이를 보여준다.

<거리 등에서 길을 물어 볼 때>

⑦-1. 여기요, 광화문은 어디로 가요?

⑦-2. 저기요, 광화문은 어디로 가요?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 상황에서 ⑦-2와 같은 형태의 호칭을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은 처소형 호칭 중에서 ‘여기요’가 ‘저기요’보다 말하는 사람 쪽으로 상대방을 더 집중시킨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기요’의 사용빈도가 높아진다.

또, 호칭 이후에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이어갈 시간이 ‘저기요’보다 ‘여기요’가 비교적 더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호칭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는 ‘여기요’를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일회성 단순 물기 상황 등의 경우 ‘저기요’를 사용하면 된다는 정도로 가르치면 될 것이다.

때에 따라서 이 둘이 교차하여 발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에 언급한대로 더 자연스러운 호칭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유형은 학습자가 한국어의 사용 상황에 직접 놓이게 될 때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사용과 이해에 초점을 맞춰 교육해야 한다.

2.2.2 생략형

호칭의 생략은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흔히 말하는 한국어의 특징인 주어의 생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호칭은 거의 모든 종류의 호칭이 생략될 수 있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간략한 형태 및 특징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예를 든 ⑥, ⑦의 문장에서는 물론이고, 아래와 같은 여러 형태의 생략이 가능하다.

⑧-1. (), 어디 가는 길이세요?

⑧-2. (,)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예를 들어 ⑧-1.의 경우 ‘사장님, 부장님’등과 같은 호칭이, ⑧-2.에는 ‘선생님’ 등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략형 호칭의 경우 대화 당사자들이 같은 공간과 맥락 사이에 있지만 호칭이 생략되기 때문에 정확히 청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끝맺는 말

지난 2007년 5월 UN의 발표를 보면 한국어는 세계 10대 언어에 포함되어 있다.¹⁹ 그만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그에 따라 한국어의 사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속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어 교육은 곧 문법 교육이라는 큰 틀 아래 진행되었던 교육이 끼친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사고를 통한 유연한 언어 사용에는 소극적이고 명문화된 문법 사항에만 적극적이었던 의미이다.

물론 어느 언어에서나 문법을 모르면 한계가 있으나 규범만으로 하나의 언어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자칫 획일적인 말만 구사하는 학습자를 양산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말과 글이란 공동체의 생각과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¹⁹ 10대 언어 :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라는²⁰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 변화하는 언어의 또 다른 양상들에 대한 교육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한국어 교육에서도 기술된 문법 지식이 알려주지 못하는 언어 현상들을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법 및 현행 언어문화를 더 풍부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에 있는 언어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의 간격을 메워 주는 일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노력들이 교재에 반영되는 순환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룬 호칭어를 통한 언어문화 교육도 이러한 관점에서 교재를 보충하고 간격을 이어줌으로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박남일(2006),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 서해문집
박상천(2004), 한국어 호칭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박영순(1980), 국어와 영어에 있어서의 언어예절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5권. 비교문학회
박유희 외(2003), 우리말 오류사전, 경당
전문이(1998), 여성호칭/지칭어에 대한 담론 분석,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조현용(2003),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22호, 이중언어학회
Rod Ellis(199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박경자, 장미경, 오은진 공역(2001), 제 2언어 습득, 박이정

²⁰ 박유희 등(2003) 우리말 오류사전